

'생태문명도시 새만금' 시작 알리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준공
야생 동·식물 서식처
생태교육·체험공간
내년 5월 일반에 공개

새만금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도시 새만금'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환경생태단지가 들어섰다. 전북도는 28일 환경부와 함께,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원 새만금 내부에 축구장 110배 크기(78만5,000㎡) 규모의 1단계 환경생태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환경부 차관, 이원택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중계됐다. 이번 행사는 환경생태단지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환경부장관 및 전북도지사 표창에 이어, 방문자센터 현판 제막식과 생태단지 출입구 테이프커팅식 기념식수 등을 진행했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 정화 등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했다. 이후, 총사업비 562억원 전액 국비가 투입돼 지난 2017년 말 착공, 약 4년 만인 지난 8월 27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정식 준공 승인을 받았다.



새만금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준공식이 28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축하하고 있다.

이번 1단계 환경생태단지는 ▲수상천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형 습지 및 야생동물의 서식공간 제공을 위한 '핵심보전지구'(생태습지) 25만9,000㎡, ▲습지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습지관찰대 및 탐조대 등 완충관찰지구 39만8,000㎡, ▲야생화 등 자생종 군락원 전망대(달팽이 언덕), 산책로 등 '생태교육체험지구' 12만8,000㎡로 구성됐다. 또한, 환경생태단지를 관리하고 방문자 안내 및 지원 등을 위해 방문자센터(인사 1층, 1,042㎡)를 설치했다. 아울러, 운영권리는 자연생태단지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했고, 개장을 위한 준비단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식 개장을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오는 2050년까지 4단계에 걸쳐 49.8㎢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야생 동·식물 서식 및 생태체험·환경교육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2050년까지 49.8㎢ 규모로 총사업비 1조 1,511억 원을 투입해 단계별(4단계)로 추진한다. 도는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2단계 사업을 관광레저용지 아래쪽에 357만㎡(축구장 약 500배)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야생동물서식지(149만㎡), 자연생태식(103만㎡), 국제생태환경체험원(41만㎡), 영생식물원이(64만㎡) 등을 조성해 새만금 고유의 생태 경관을 창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근 변산반도와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해 명실상부한 국제적 명품 생태관광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북이 찾는 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스마트수변도시"에 이어, 이번 환경생태단지 조성으로 '생태문명의 도시, 새만금'의 비전이 확실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만금을 산업과 관광,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청년CEO들에 힘 보태 것'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모두의 경제포럼' 상임고문 맡아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청년CEO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두의 경제포럼'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난 27일 도내 청년CEO 20여 명으로 구성된 '모두의 경제포럼' 공동대표단은 지방자치의 날(29일)을 맞아 조지훈 전 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경제포럼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더 늦기 전에 일어나는 전주를 위해 전주 경제가 지속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년CEO들이 기획·추진한 것으로 다음 달 중순쯤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확실한 공약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포했다. 이번 초청 간담회는 이 같은 포럼 취지를 조 전 원장에게 전하는 동시에 그 누구보다 전주에 대해 잘 아는 만큼 전주경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 상임고문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청년CEO들은 현재 유일하게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

데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현실적인 공약을 내놓았으며,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소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기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보좌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상임고문을 제안한 이유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다.

간담회에서 청년CEO들은 "경제적 활력을 되찾고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만큼 포럼을 기획·추진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전주는 물론 지역 경제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청년CEO들이 모여 의미 있는 포럼을 구성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은 여러 목소리가 모여야 바뀌고 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역할을 하는 포럼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유력인사를 통해서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수소위원회 설립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두세훈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24.)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수소산업 관련 조례에 전문성이 있는 수소위원회 설치 및 수소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또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등 수소산업 안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북도가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수소 산업현황 협의체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수소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황영석 도의회 부의장 '품격 소통상' 수상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부의장, 김제1)이 도의원들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 등의 평가에서 품격 소통상을 수상했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도청 청원원을 대상으로 도의원 39명에게 대해 4개 지표(전문성, 품격인성, 소통, 의정활동)를 설문조사. 평가해 황영석 의원을 품격 소통상에 선정했다.

전북노조는 "황영석 의원은 특권을 내려 놓으며 새로운 도의회 변화에 시동을 걸고 특히, '전북도 환경파헤치'로 인한 주민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 대표발의, 제정하고 환경캠페인 '고고렐린지' 동참 및 공무원과 격식 없는 대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영석 의원은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특권 소통상을 선정해 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며 "도민들의 민의를 더욱 잘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는 주문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180만 전북도민에게 더 좋은 삶을 꿈꾸게 할 수 있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8일 울산광역시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북 중심 발생 벼 병해충 피해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해달라"

전국 시도의장들, "균특회계, 균형발전 목적에 맞게 편성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정부가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 집행은 중단하고, 균형발전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8일 울산광역시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나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문, 주택지구사업 등 지정 효율적 제도운영 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벼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5.6%(전국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에서 벼 이삭도열병, 세균벼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확량이 매년 대비 5~8% 감소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예찰과 공동방제를 했는데도 병

해충을 잡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피해지역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송 의장은 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수도권 SOC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사업 예산이 비수도권 나후지역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주택지구사업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최소한의 지정단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인데다 지정 유지 검토 주기가 반기여서 피해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정지구 세분화와 검토 주기를 분기별로 변경해 규제장벽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G20·COP26 역사상 중요 회의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COP26(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은 역사상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럽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코로나 백신의 공량한 분배, 격차 해소,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전세계인의 의지를 모으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하기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주한 이탈리아 대사 주한 영구대사, 주한 헝가리대사 대리와 환담을 가졌다.

G20 회의를 COP26에 기대감을 드러낸 문 대통령은 헝가리 방문에 대해선 "헝가리 정부는 지난 유람선 사고 때 성의를 다해 한국을 돕고, 추모공간을 세워주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며 "이번 순방이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호상 기자

강남역 의식되면 '139'로